



12면

지역 유교문화역사 증거물
장수 장안산서 조선 금석문 발견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음 10월 3일) 제2659호

대표전화 (063)288-9700



16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2020 생태교통국제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도로 위 탄소제로' 꿈 공유

한-EU 생태교통 국제컨퍼런스... 팔복예술공장에서 지역의 다양한 생태교통 정책 학습·협력하는 장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첫마중길'을 조성하고 수소 시내버스와 전기 마을버스를 도입한 전주시의 생태교통 정책이 전국에 공유됐다. 전주시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교통네트워킹은 16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생태교통-도로 위의 탄소제로'를 주제로 2020 한-EU 생태교통국제컨퍼런스 IN JEONJU'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16면) 각 지역의 생태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학습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 위한 이 컨퍼런스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컨퍼런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전거 생활화에 기여한 '자전거출퇴근챌린지'의 성과보고와 시상식으로 시작했다.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추병구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과 이동원 당진시 지속가능협력팀장이 참여해 자전거출퇴근챌린지 참여지역 지정토론도 열렸다. 자전거출퇴근챌린지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를 포인트로 환산해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발한 지역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시민실천 캠페인으로, 지난 9

월 2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전주를 포함한 12개 도시에서 진행됐다. 총 2,953명이 참가한 이번 챌린지에서 총 주행거리는 76만18,280km를 기록, 16만 3,567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지방정부 생태교통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생태교통으로 만드는 사람의 도시'를 주제로 전주시 사례를 공유했다. 김 시장은 시민과 함께 탄소를 줄이고, 숲을 넓히고, 길을 공유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전주시 생태

도시종합계획'과 ▲8차선을 6차선으로 줄이며 직선도로를 S자형 곡선으로 바꿔 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첫마중길 조성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자전거 대행진 및 자전거출퇴근챌린지 운영 ▲수소 시내버스 및 친환경 마을버스(전기버스) 운행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보다는 두 발로 걷고 싶고 자전거를 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유럽의 자전거 우수도시로 꼽히는 스웨덴 말뫼시의 안드레아스 스킨스트롬 부시장과 서철모 화성시장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25곳 지정... 26일까지 신청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21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는 내년 3월 1일자로 학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운영을 신청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1일자로 결원이 발생하는 37개교의 2/3 범위내에서 초등 15개교, 중등 10개교 등 총 25개교를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6일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를 확정, 19일 공모지정 학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0~26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은 뒤

12월 10~15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12월 17~22일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최종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 2021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해당 학교를 이끌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데 있다"며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위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 경제회복 방점 예산안 2조345억 편성

당초 예산 대비 1359억원 증액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주력

전주시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주시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당초예산인 1조8,988억원 대비 1,359억원(7.2%) 증액된 2조345억원으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정책 본격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기반 마련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등의 정책이 반영됐다. ▲사립이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시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는 1,451억원 증가한 1조8,208억원, 특별회계는 92억원 감소한 2,137억원이 책정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해고 없는 도시 추진 11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478억원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수소선도도시 조성 184억원 ▲탄소기술훈련연구소 10억원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8억원 ▲드론혁신지원센터 및 드론산업 국제박람회 운영 4억원 ▲금융산업전문인력 양성 1억 원 등 수소·탄소·드론·금융 등 4대 신성장산업의 질적 도약에 공을 들인다.

전주시립상품권 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154억원 증가한 20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업인 등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공제기입 지원 2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15억원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6억원 ▲농민수당 30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는 또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춘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98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5억원 ▲지역SW기업 성장지원 5억 4,000만원 ▲SW융합클러스터 4억2,000

만원 ▲VR?AR제작거점센터 4억원 ▲도시 바람길숲 및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132억원 ▲지방정원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8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13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0억원 등이다. 시는 관광 분야에는 ▲관광거점도시 기반 구축 98억원 ▲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 및 예술마을 조성 37억원 ▲전라강역, 부성 등 역사복원사업 18억원 ▲역사전문문화도시 조성 47억원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28억원 ▲생태동물원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 조성 70억원 등을 반영시켰다.

복지 분야에는 총 예산의 40%(8,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도시재생사업 163.5억 원을 포함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39억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17억원 ▲놀이터 및 놀이환경 개선 12억5,000만원 ▲야호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과 재난·재해 등에도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6억5,000만원 ▲호흡기정담름리나 설치·운영 3억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8,000만원 ▲국가예방접종 93억원 ▲터진보건소 건립 35억원 ▲재난관리기금 70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대여소 무인시스템 구축 28억원 ▲도로·하천정비 등 475억원 ▲시민안전, 풍수해, 농업재해 등 보험지원 9억원 등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시민 삶 전체를 예산에 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과 용기로 전주의 운명을 개척하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군민의 삶 지켜주는 든든한 의회
완주군의회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2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0.11.17~12.16, 30일간)